

식약처장, '뷰티테크' 미래발전 지원방안 논의

-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뷰티테크 제품 개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
-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K-뷰티 세계 진출 확대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5월 28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(서울 서초구 소재)을 방문하여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뷰티테크 제품을 살펴보고, 관계부처* 및 국내 주요 뷰티기업들**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재정경제부, 보건복지부, 중소벤처기업부

** (주)아모레퍼시픽, (주)LG생활건강, 한국콜마(주), (주)룰루랩, (주)릴리커버, (주)피키글로벌

K-뷰티는 지난해 101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세계 화장품 수출국가 2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. 이제 K-뷰티는 뛰어난 제품력과 디자인을 넘어, AI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.

이번 간담회는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'뷰티테크' 분야의 업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▲첨단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평가 기술 도입 ▲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화장품의 개발 지원 ▲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의 규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.

오유경 처장은 “K-뷰티의 눈부신 성장은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온 업계의 노고 덕분”이라며, “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 기술이 수출 경쟁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”고 밝혔다.

참고로, 식약처는 ‘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’를 통해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, 국내·외 인허가 규제 정보 및 글로벌 화장품 원료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아울러, '28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‘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’에 대해서도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, 컨설팅,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, K-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연 (043-719-34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경 (043-719-3402)

